

“득남에 수술회복 좋아…이젠 우승해야죠”



어깨 수술 후 재활중인 KIA 윤석민이 28일 함평 첼린저스 필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A 윤석민 어깨수술 후 재활 순조

4년간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엔 젓가락도 못 들만큼 통증

기본운동 소화할 정도로 상태 호전

건강하게 마운드로 돌아가고 싶어

두려움을 이겨낸 KIA 윤석민이 다시 된다.

KIA 윤석민에게 2016년은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이 공존한 한 해였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려왔던 그는 많은 시간을 재활에 보내며 속을 끓였다. 선발로 시작해 중간 계투로 역할을 한 그는 결국 시즌이 끝난 뒤 우측 어깨의 옷자란 뼈를 깎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야구 선수에게는 흔한 수술 경력 하나 없던 윤석민에게는 야구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힘겨웠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2016년은 윤석민에게 특별한 선물도 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윤석민은 자신을 닮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적인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있을 수 없는 한 해를 달려온 윤석민은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함평 첼린저스 필드 재활센터를 오가며 2016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예후도 좋다.

빠른 회복 속도에 윤석민은 “도마뱀 같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웃었다.

내달 12일 일본으로 건너가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받을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재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털어냈다는 점에서 마음이 가뻐다.

지난해에도 어깨 통증으로 고전했던 윤석민은 올 시즌이 끝난 뒤에야 수술을 선택했다. 올 시즌 중반에는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지만 투수에게는 민감한 어깨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윤석민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트리릴 정도로 어깨가 많이 아팠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공을 던졌는지도 모르겠다”며 “어깨라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 (진)병 두와 (이)법석이 형 등 주변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이들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 수술 후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에 얹혀있는 무거운 책임감도 그를 마운드에 오르게 했다.

“일본에서도 결과가 좋은 사례가 많다고 하고, 회복 상태도 좋아서 다행히 다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은 윤석민은 “KIA로 돌아와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먹튀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계약기간인) 4년 정도는 아픈 것을 참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뒤늦게 수술을 결정했던 그는 차근차근 마운드로 돌아갈 계획이다.

윤석민은 “지금은 특별한 계획과 복귀 일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 상태는 좋지만 내달 일본에서의 검진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재활스케줄과 목표를 정할 생각이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있다. 다시 우승을 해보고 싶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평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태극낭자 LPGA 달군다

신인상 등 2관왕 전인지·재기 노리는 박인비

장하나·김세영·김효주에 박성현까지 가세

올해 코리안 남자군단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활약은 우승 횟수만 보면 지난해만 못했다.

올해 우승 트로피는 9개로 2015년 14개보다 줄어 들었다. 2013년부터 이어온 두 자릿수 승수 활기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 등 굵직한 대회를 석권하며 올해도 세계 여자골프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수집한 우승컵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는 8명으로 상위권을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적응기를 마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들이 재기에 나선다. 여기에 걸출한 예비스타가 합류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예약하고 있다.

가장 큰 기대주는 전인지(22)다. 지난해 비화원으로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 특급 신인으로 주목받은 전인지는 올 시즌 기대에 부응했다.

신인상과 평균 최저타수상 등 2관왕에 올랐다. 최저타수상은 세계랭킹 1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를 제쳤다. 우승은 한 번뿐이지만 메이저 대회 예비앙 챔피언십이었다.

특히, 세계 여자 골프 ‘빅3’에 합류했다. LPGA 무대 1년 차임에도 한국 선수 중 랭킹(3위)이 가장 높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28)는 내년이 재기 무대다.

손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이 겹친 박인비는 올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10개 대회밖에 치르지 못했고 상금은 25만3천달러(69위)에 그쳤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16년 만의 여자골프 금메달 주인공이 됐지만, LPGA 투어에서는 아쉬운 한해였다.

한 때 1위였던 세계랭킹도 10위까지 떨어졌다. 박인비는 그러나 부상에서 회복, 올 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낼 체미를 갖쳤다.

‘슈퍼 루키’ 박성현(23)은 내년 LPGA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7승을 올리며 상금왕과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휩쓸었다.

국내 투어와 병행하면서 출전한 LPGA 투어에서도 두각을 보여 내년 미국 출전권을 따냈다. 박성현의 가세는 코리안 군단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LPGA 투어 2년 차 장하나(24)는 올 시즌 3승을 따내 한국 자매 군단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신인왕 김세영도 2차례 우승으로 차세대 골프 여왕에 도전할 재목임을 입증했다.

시즌 초 1승에 그친 김효주(21)는 2017년 KLPGA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 뼉 퍼팅 실수의 저주에서 6년만에 벗어난 김인경(28), 135차례 출전한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 물꼬를 튼 신지은(24)도 본격적인 우승 사냥에 나선다.

2년간 우승컵 하나 없이 세계랭킹 9위에 랭크돼 있는 유소연(26)과 랭킹 12위 양희영(27)도 호시탐탐 우승을 노린다.

3차례 켈리파잉스쿨을 치른 끝에 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따낸 이정은(28)의 활약도 관심을 모으는 내년이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남자부 FA ‘자유 없다’

2018년부터 등급제 시행…연봉따라 보상 규정 차이

한국프로배구가 FA(자유계약선수) 제도의 모순 하나를 지워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2018년부터 남자부 FA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A 자격을 얻고도 ‘자유롭지 못했다’ 선수들이 한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V리그 FA 시장은 경직돼 있었다. 2016 FA 시장에서 20명이 자격을 얻었지만, 팀을 옮긴 FA는 이선규(삼성화재→KB손해보험)뿐이었다. 보상 규정이 선수와 구단의 발목을 잡았다. 개정 전 KOVO FA 규정은 ‘해당 선수 연봉의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원소속팀에 보상한다.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으면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보호 선수는 FA로 영입한 선수를 포함해 5명이다’라고 명시했다.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여가 아니라면, 주전급 선수를 내줘야 하는 보상 규정까지 감수하면서 FA로 영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원소속구단이 일단 FA와 재계약하고, 해당 선수에 관심을 보이는 타 구단에 트레이드하는 ‘변칙 계약’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KOVO는 연봉 2억5000만원 이상을 받는 FA를 영입할 때만 보상 선수를 내주고, 그 미만의 연봉을 받는 FA를 영입하면 보상금만 내주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갖췄다.

사실 FA 등급제는 구단의 양보가 필

요한 부분이다. FA 등급제 실시로 준계약의 이적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선수 몸값이 오른다.KOVO 관계자는 “V리그 구단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FA 등급제에 합의했다. 급진적인 부분보다 리그 활성화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로배구의 움직임에 야구관계자도 놀랐다.

한 프로야구 단장은 “선수협회가 없는 프로배구에서 야구보다 먼저 FA 등급제를 시행하는 건 무척 놀라운 일”이라며 “FA 등급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 정도”라고 밝혔다.

프로야구에서도 FA 몸값 폭등과 미아 방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FA 등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KBO와 선수협은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 대부분이 대어급 FA 영입을 위해서는 보상 규정을 감수하지만, 그 이하로 판단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들어 영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야구는 FA 등급제를 실시한다.

한국 프로스포츠에서도 야구보다 규모가 작은 배구에서 FA 등급제를 먼저 도입했다. 2007~2008시즌 전 세계 배구 리그 중 최초로 비디오판독을 도입했던 KOVO가 또 한 번 ‘틀’을 깬다.

/연합뉴스

“속 타네” “여유롭네” 프로야구 FA 미계약 4인 ‘극과 극’

‘30대 중반’ 정성훈·이진영·조영훈 잔류 무계 두고 협상

황재균, 롯데·kt서 ‘손짓’…메이저리그 진출도 타진 중

프로야구 선수에게 프리에이전트(FA) 자격 취득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다.

9시즌을 꼬박 채워야 해서 프로 무대에 뛰어난 선수 가운데 선택받은 일부 선수만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A가 된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FA 계약 시 원소속팀에 보상선수 지급’이라는 규정 때문에 일부 ‘특급’ FA 선수를 제외한 대다수 선수는 갈자루를 구단에 넘겨준다. 해가 다 가도록 아직 계약하지 못한 정성훈(36), 이진영(36), 조영훈(34)이 그렇다.

정성훈과 이진영은 이번이 세 번째 FA 자격 행사로 이제는 구단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여전히 이들의 기량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 정성훈은 LG 트윈스에서 126경기에서 타율 0.322, 6홈런, 64타점을 기록했다. 이진영 역시 kt 위즈에서 115경기 타율 0.332, 10홈런, 72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행 FA 제도에서 만으로 37세가 되는 타자를 영입하기 위해 보상선수 출혈을 감수하는 구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정성훈과 이진영은 잔류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성훈은 LG로부터 1년을, 이진영은 케이티로부터 2년을 각각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조영훈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NC 다이노스의 백업 1루수로 109경기에서 타율 0.335, 5홈런, 35타점을 기록한 조영훈은 최근 구단으로부터 계약을 제시받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에 고민을 거듭한다.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인 황재균(29)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영입을 원하는 구단의 물밑 경쟁이 한창이며,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미 원소속팀 롯데와 공개적으

로 영입을 선언한 kt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황재균은 여전히 미국 무대의 꿈을 접지 않는다. 올해 127경기에서 타율 0.335, 27홈런, 113타점으로 데뷔 후 최고 성적까지 거둬 자신감은 더욱 높다.

황재균은 “저스틴 터너(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계약이 됐으니 이제부터 메이저리그 3루수 FA 시장도 풀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느긋하게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FA 미계약 4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대호(34) 역시 국내 구단과 계약이 가능한 FA 신분이다.

올해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타율 0.253, 14홈런, 49타점을 기록한 이대호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팀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메이저리그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대호의 장타력을 체감했던 일본 야구계는 이대호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낸다. 최근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이대호의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는 재도약을 위한 핵심 카드로 그를 지목했다.

/연합뉴스